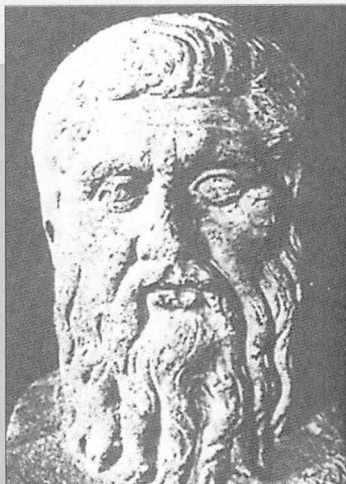


# 글보다 말이 중요하던 시절의 검열

서양의 금서 이야기 — 3

주명철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책이 귀하던 시절, 읽기의 행위는  
지금과 사뭇 달랐다. 글에 소리를  
주지 않는다면 그 글은 제아무리  
굴러다닌다 할지라도 저자의 사상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소크라테스 이전에 아낙사고라스의 글이  
금서가 되어 불길에 휩싸였다 해도  
당시에는 글보다 말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말이건 글이건  
검열을 거쳐야 한다는 생각이  
플라톤의 저작에서 처음 나타났다.



플라톤

우리 조상은 발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했다. 그러나 발없는 말이 천리를 얼마 동안에 어떤 방식으로 갈 수 있는가 따져 볼 때, 이 재담은 정보화 시대인 오늘날의 현실을 설명하는 데 더 적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천리 아니라 5만리 밖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직접 대화를 하거나, 영상까지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발없는 말이 직접 얼굴을 볼 수 없는 곳에 있는 사람에게 갈 수 있게 된 것은 겨우 150년도 안된 일이다. 모르스가 1837년 전신기를 발명하고 벨이 1877년 전화기를 상용화한 이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과 다른 기준으로 말이 전파되는 범위와 속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물론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봉화나 비둘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사람이 직접 다니는 방법만이 좀더 많은 정보를 정확히 옮기는 최선의 길이였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가 여론제관의 제물이 되던 시대에 최선의 운송수단과 빠르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승전보를 빨리

전하기 위해 마라톤 평원을 죽자사자 달려간 병사에게 말이 있었다면, 그가 그렇게 달렸겠는가?

##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보 전달

동력으로 바람과 사람의 힘만 이용하던 배의 최고속도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주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이순신 장군의 전령이 노군(櫓軍)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가운데 무엇을 먼저 듣고 싶냐고 물었다. 노군은 일제히 '좋은 소식'을 외쳤다. 그들은 그날부터 맘껏 먹고 휴가도 자주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은? 그날부터 장군은 수상스키를 타시겠다는 것이었다. 노에서 땀이 나거나 바닷물에서 김이 나도록 저어도 불가능할 텐데, 영화 <벤허>를 본 사람은 북소리에 맞춰 노트는 속도가 달라지는 장면을 기억할 것이다. '공격 속도'를 알리는 북소리에 벤허를 포함한 노에는 거의 초속음에 이르렀다.

항구를 끼고 발달한 그리스 도시국가에서도 뱃길을 많이 이용했다. 노를 양쪽에 열 개씩 모두 스무 개를 단 배에서 천 개 단 배로 발전하고, 2층(bireme)으로 노를 배치하여 노군의 수를 두 배 이상 늘리더니, 3층(trireme)으로 배치하는 데까지 나아가 배의 길이를 늘이지 않은 채, 노를 170 개까지 장착할 수 있었다. 배로 여행하는 것이 산과 강이 자주 길을 끊어 놓는 지형에서는 훨씬 유리하다. 특별히 서두르지 않고 하루 열여섯 시간 정도 배를 몰 때, 최고 129 해리(225킬로미터)를 갈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땅위에서는? 발달된 말을 길들인 것은 기원전 4000년의 일이다. 그 뒤부터 육지에서는 말을 타고 달릴 때 최고 속력을 낼 수 있었다.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 말, 페르샤 제국에서 다리우스 1세는 왕도(王道)를 닦아서 페르샤의 수사에서 소아시아의 사르테스까지 2400킬로미터를 100여개 구간으로 나누어 여행자와 말이 쉴 곳을 마련하면서 석달 이상 걸리던 길을 일주일 정도에 갈 수 있게 단축시켰다. 이 지역은 지금부터 13,000년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정착생활을 시작한 곳인데, 당시 정보의 전파속도는 1년에 5킬로미터였다고 한다. 2500년 전의 속도는 오늘날에 비하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지만, 원시사회보다는 번개처럼 빨라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뱃길과 땅에서 운송수단을 간단히 비교하고, 게다가 너무 쉽게 일반화를 시켜서 좀 두렵긴 해도, 길을 잘 놓은 육지나 조건이 좋은 바다나 거의 비슷한 속도로 갈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살던 시대의 — 동물이건 언어건 — 말은 최상의 조건에서 이를 정도 걸려서 천리를 갔던 셈이다. 그러나 실제로 더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아무튼 우리는 이같은 조건 속에서 지식이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었음을 알면 족하다.

말의 한계는 반드시 전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데 있었으나, 글보다는 오해의 소지를 갖지 않았다고 플라톤은 믿었다. 연설을 듣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연설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오해를 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을 고정시킨 글

은 이리저리 “굴러다녔다.” 자신을 옹호해줄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것은 자신을 방어할 수 없었다.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말하는 플라톤은 글이 굴러다닌다고 말할 때, 당시의 책을 머리속에 그리면서 말했다. 왜냐하면 당시의 책은 두루말이(volumen)였기 때문이다.

### 소리내어 읽기

모든 문화는 환경의 산물이며, 두루말이도 마찬가지다. 종이를 얻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책처럼 만들기보다는 낱장을 길게 이어서 한쪽면에 글을 쓰는 두루말이가 당시 책의 형태였다. 두루말이는 파피루스처럼 쉽게 상할 수 있는 종이로 만들 수 있는 최선의 형태를 가진 책이었다. 2세기 이후, 양피지의 낱장을 우리가 흔히 보는 책처럼 묶은 ‘코덱스’(codex)가 나온 뒤에도, 두루말이는 존속했다. 우리는 ‘코덱스’가 나온 뒤에 제작한 조각이나 그림에서 두루말이를 들고 있는 사람을 표현한 예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당시 사람들은 책의 권위를 그렇게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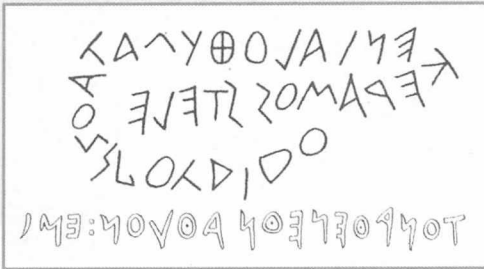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사람들이 ‘구르는 글’을 제대로 취급하지 않거나 남용한다 해도, 그것은 자신을 지켜줄 보호자를 갖지 못한다고 말했다. 플라톤은 글읽기란 그 자체가 하나의 해석을 낳는 일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플라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책읽기와 다른 책읽기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썼을 것이다. “다 오 시 이 케 너 너 러 오 러 쓰 러 때 가 트 디 스 거 모 너 러 거 너 오 거 디 이 나 트 마 러 오 러 나 트 시 아 나 호 그 오 이 어 서 서 쓰 기 때 트 노 케”

대부분의 독자는 소리를 내지 않고서는 읽을 수 없을 정도였다. 반드시 소리 내서 읽고, 그 소리를 귀로 확인하면서 뜻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므로 읽기 기술을 어느 정도로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연속된 글’(scriptio continua)의 뜻을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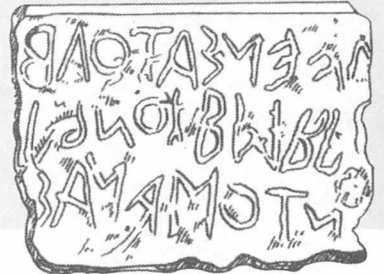
물론 고대에는 소리내어 읽기(音讀)가 널리 퍼진 관행이었다고 할지라도, 속으로 읽기(默

플라톤은 덕을 갖춘 공동체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 《국가》를 썼다. 구성원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키기 위한 계획 중 하나가 검열이었다. 국가의 지도노선에 따라 지식을 통제하는 검열이 이렇게 최초로 철학적 뒷받침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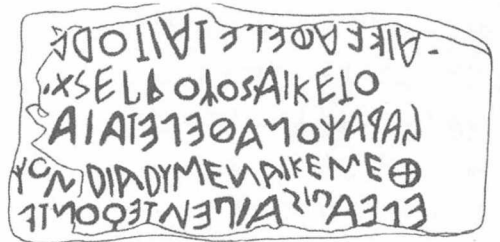
초기 그리스의 문자들. 《세계의 문자》(범우사) 중에서



아테네에서 출토된 두 종류의 각문



코린트 출토 타블렛



초기 맹약문 각석(기원전 6~5세기)

讀) 기술을 터득한 사람도 있었다. 버나드 녹스(B. Knox)는 424년 아리스토파네스가 쓴 《기사(騎士)》에서 목독의 증거를 뽑아냈다. 데모스테네스는 니키아스가 채워준 포도주 잔을 비우면서 신탁을 적은 글을 읽는다. 니키아스는 묻는다. “신탁에 뭐라고 나왔나요?” 데모스테네스는 읽기에 열중하면서 말한다. “한 잔 더 채워.” 니키아스는 되묻는다. “‘한 잔 더 채워’ 라고 했다고요?” 데모스테네스는 속으로 읽으면서 포도주를 원했고, 니키아스는 데모스테네스가 신탁을 소리내서 읽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글읽기의 왕초보는 큰 소리로 읽어야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줄 안다. 그러나 대형서점에 가보라. 수많은 사람이 서서 책을 읽는 모습을 쉽게 볼 것이다. 그들이 저마다 소리내서 읽는다면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 다행히 그들은 목독에 속독의 기술까지 터득했기 때문에 공짜로 계절스럽게 책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책이 상대적으로 귀하던 시절,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말을 글로 고정시키던 시절, 읽기라는 행위도 우리와 사뭇 달랐다. 만일 글에 소리를 다시 주지 않는다면, 그 글은 제아무리 굴러다닌다 할지라도 저자의 사상을 전달하는 역할을 제

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낱말을 구분해서 글을 쓰지 않는 한, 목독의 관행은 그리 쉽게 퍼지지 못하고, 글의 활용도도 그리 높지 못할 것임이 분명하다.

### 올바른 교육을 위한 검열

그러므로 소크라테스 이전에 아낙사고라스의 글이 금서가 되어 불길에 휩싸였다 할지라도, 당시에는 글보다는 말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말이건 글이건 검열을 거쳐야 한다는 생각이 플라톤의 저작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같은 고결한 인물의 죽음을 보고, 개인이 제아무리 덕을 갖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덕을 갖춘 공동체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 《국가》를 썼다. 그러한 공동체는 그 구성원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올바른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 계획의 한 부분이 검열이었다. 플라톤은 어린이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허황된 이야기, 이를 테면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 같은 사람의 작품을 들려주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믿었다. 국가의 지도노선에 따라 지식을 통제하는 검열이 이렇게 최초로 철학적 뒷받침을 얻고 있었다. ●